

# 사회적기업을 통한 돌봄노동의 지원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pport of Care Work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 Model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정영금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Young Keum Je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적용  |
| II.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발전과정 | V. 결론: 가족자원경영학적 과제 및 적용가능성 |
| III. 돌봄노동의 실태        | 참고문헌                       |

### <Abstract>

Various family-friendly policies have been put into place for working mothers, but their paid and household workloads have not decreased. Many women have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s due to care work, so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care work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ocial enterprise model to care work. Definitions, types, and development processes in social enterprise in several n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 problems of care work in Korean households and national support for them are surveyed. Public institutions' contributions in child-care and family elder care an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problems thereof were discussed. Third, several principles and advantages of applying social enterprise models to care work were suggested.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what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an do to reduce the workload of a household through social enterprises. This center can be a testing place that supports care work by various means from small volunteering groups to social enterprise according to profit level.

**주제어(Key Words)** : 돌봄노동(care work), 자녀돌봄(child care), 노인돌봄(elderly care),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Keum Jeong,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eokgok2-dong, Wonmi-gu, Bucheon,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308 Fax: +82-2-2164-4301 E-mail: jeongyk@catholic.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2차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나 맞벌이가정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자녀나 노인의 돌봄을 위한 노동력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의 저하나 고령화의 심화, 돌봄노동의 공백 등은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가족이나 여성에게 부담지울 사안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한 연구결과(장혜경 외, 2006)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 속에서 부부가 돌봄노동을 담당하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을 위한 시설을 4-5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심하며 보육비 지원확대나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비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더욱 방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육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가정생활의 부담을 분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 및 기업정책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정책은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통해 가정생활, 특히 돌봄노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융통적 노동시간제 등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돌봄노동을 재정적으로 분담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고용인들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와 생산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선도적인 기업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대다수의 고용인들은 가족친화적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취업여성과 맞벌이 가정들은 돌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출산과 육아가 가장 큰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노인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할 것인데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국가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주도형이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사회적기업을 저소득층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리적 목적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돌봄노동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정책과 그 정책의 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가족품앗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공동육아형태의 지역사회운동이므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나 지속성이나 참가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가치와 영리성을 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봄으로써 돌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모델을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기 위한 이론적 타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안에서 돌봄노동을 위한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여성고용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발전과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더불어 우리나라 가정의 돌봄노동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가정 및 국가의 돌봄노동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생활과학적 시각에서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서 여러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되 돌봄노동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실태를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끌게 된 연구주제로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생활과학분야에서는 학문적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와 발전과정을 통해 돌봄노동에 적용해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와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따로 전개한 후 두 주제를 결합하여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결합가능성에 국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II.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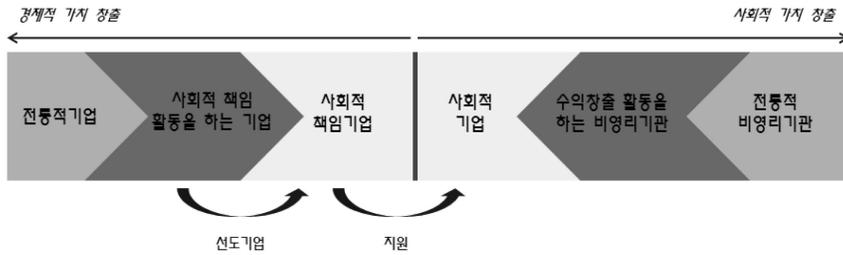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유형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는 양적인 성장의 혜택과 더불어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증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복지지출이나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창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마다 혹은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에 따라 개념이나 영역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네트워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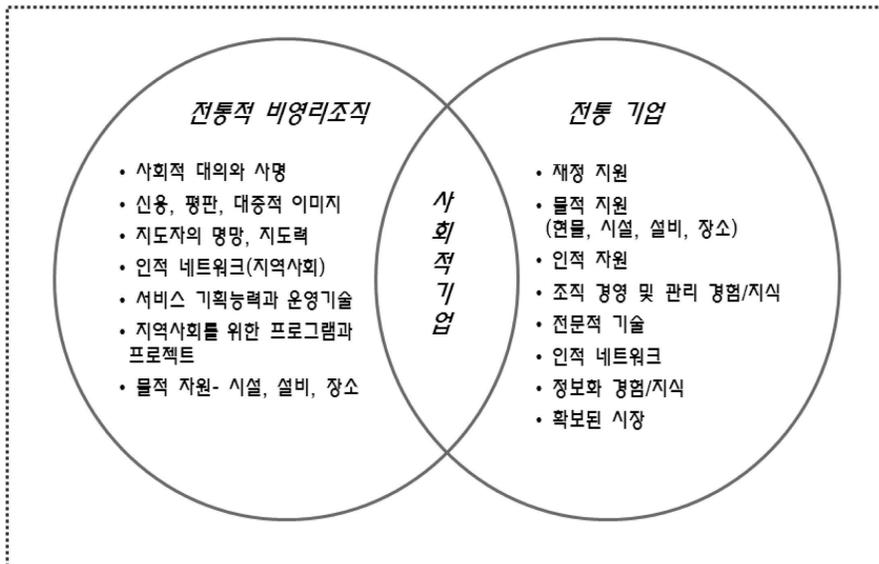
이익 추구,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원칙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경영상 리스크 동반, 경영의 자율성,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홍석빈, 2009. 재인용).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업을 통한 이윤추구와 고용창출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함에 따라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과 같은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보다 더 나아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물론 새로운 기회의 창출로서 지역사회중심의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그림 1>과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은 현금이나 고용인들의 자원활동을 기부하는 자선적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접목할 수 있는 공헌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통적 비영리조직의 수입창출활동을 연계시킨 부분에서 시작된다(<그림 2>참고).



출처: Social Enterprise Typology를 정무성(2009)에서 재인용

<그림 1> 기업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출처: 정무성(2009)

<그림 2> 사회적기업과 기업의 관계

개념정의에 따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회사, 지역공동체이익회사 등 용어도 다양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으로 통일되어 정부나 시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기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Alter(2006)는 고용 모델, 시장중계형, 서비스 보조금형, 조직지원형, 시장연계형, 서비스요금형, 기업가지원형, 비영리-기업 연계형, 프랜차이즈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하면(노동부, 2007, 2008),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그림 3>과 같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비중과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제공비율을 중심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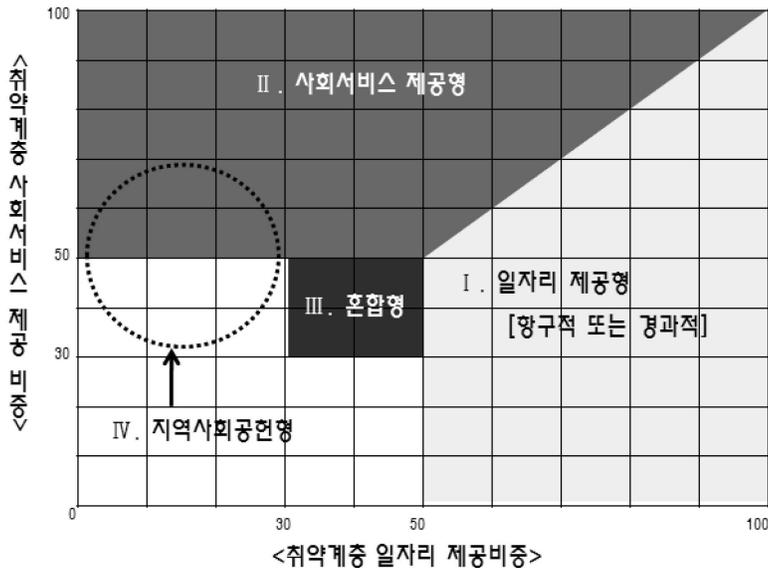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개념이므로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거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발전은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양분된다. 우선 유럽형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기업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유럽형은 세계 감면 등의 지원이 있었고 협회나 협동조합 형태가 많았으며 제한적 이윤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모델을 주로 채용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형은 정부의 지원없이 수익

창출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윤추구적 기업을 지향한다(<표 1.참고>. 홍석빈, 2009).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도 차이가 있다. 유럽형의 대표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이익회사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총괄하며, 주민자치센터나 건강센터를 개설하여 마련된 강좌나 수익을 통해 주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도록 지원한다. 월예, 전통문화, 공원 관리 등 문화예술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미국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명문화된 제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사업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영리조직에 가까운 모델에서부터 지역사회 벤처와 같은 기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운영된다(홍석빈, 2009).

한편, 일본의 사회적기업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발전되었다. 이것은 지역 내 문제해결에 비즈니스의 시각을 도입하여 생활인 의식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주민중심의 지역사업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므로 취업이 기회가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화되는 동시에 주민들



출처: 노동부(2008)

<그림 3>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유형

에게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細內信孝, 2007, p. 49).

일본의 공공서비스는 정부나 자치단체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재정적자로 인해 공공부분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과 기업,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행정기관은 정책적으로 민간을 후원하고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윈윈정책의 결과이며, 공공성과 비즈니스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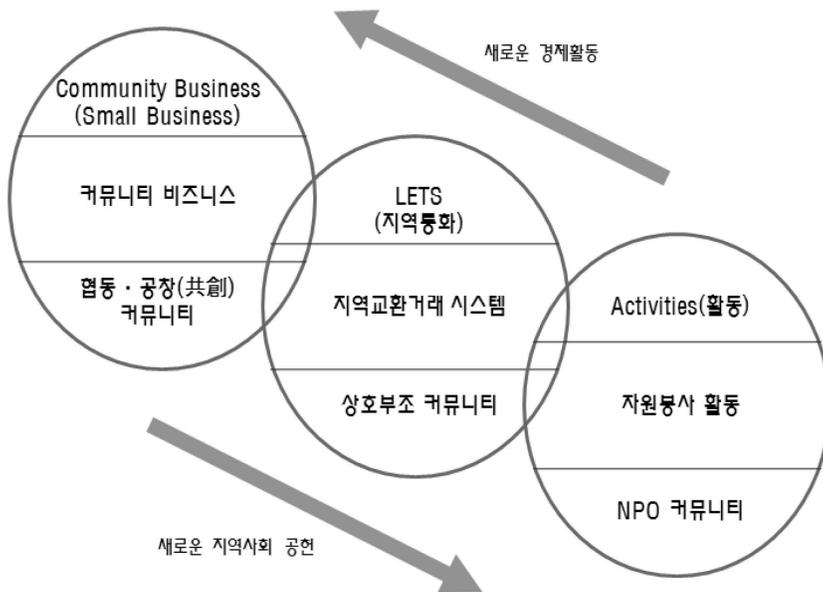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4월 현재 218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사회적기업개요집, 2009). 특히 최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문화와 맞물려 대기업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많아 순수기업모델로서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은 적은 실정이다.

2008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54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65개(42.2%),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2개(14.3%), 혼합형은 43개

(27.9%), 지역사회공헌형은 24개(15.6%)였다. 설립경로별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84개소(54.5%), 장애인고용시설 28개소(18.2%), 자활공동체 26개소(16.9%)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9개소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였고, 기타 지역은 시, 도별로 3-11개 수준이었다(노동부, 2008). 이 결과로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고용 등에 집중되어있고,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의 결과를 보면, 2009년 7월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251개인데 이 중 일자리제공형이 110개(43.8%), 사회서비스제공형이 33개(13.1%), 혼합형이 71개(28.2%), 기타형이 37개(14.7%)로서 혼합형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이 45.5%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제조업 등 구체적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분류로 사업을 하는 곳이 73개로 전체의 29% 수준이며 사회복지 52개, 환경 41개, 간병과 가사지원이 33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들을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자리제공형이 110개, 혼합형 71개, 기타형 38개, 사회서비스제공형 33개 순으로 분류되어 일자리제공형이 두드러지게 많음을 알 수 있다(사회적기업개요집, 2009).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여건 악화로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대가 높고 공공서비스분야의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동시에 바우처 시스템의 발전



출처: 細內信孝, 2007, p. 49

〈그림 4〉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LETS와 자원봉사의 관계

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분권화 등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며 바우처 방식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또는 공급서비스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Ⅲ. 돌봄노동의 실태

#### 1. 가정내 돌봄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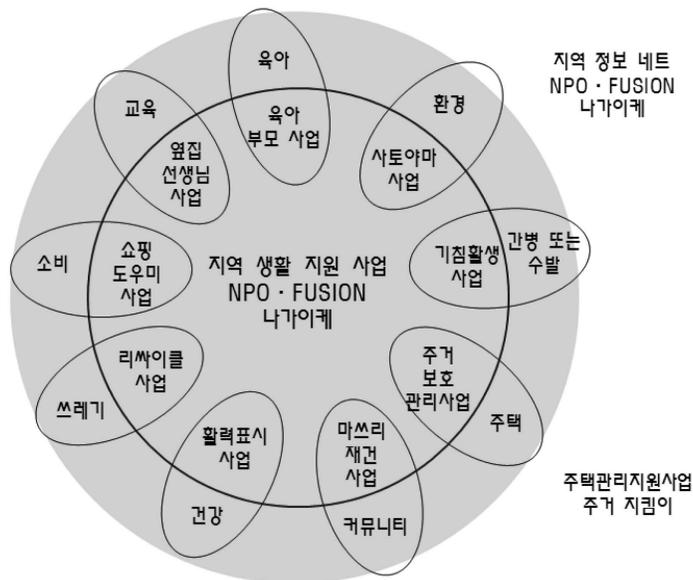
오랜 기간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가족돌봄의 기능, 즉 자녀의 양육이나 노인의 보호를 위한 역할은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로 이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가정 안에 남아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가족돌봄 기능이 사회화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환경의 미성숙으로 인해 돌봄기능이 약화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과 사회가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나 출산의 지연이 생겨나게 되었고 아동의 경우에는 불충분한 보살핌이, 여성에게는 불평등한 돌봄의 부담과 사회적 경쟁력의 약화가, 사회에는 저출산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전국가족조사(장혜경, 2003)에 의하면, 0-3세 이하의 어

린이들은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었으며(77.5%), 4-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장 많았다(합하여 60%). 이것은 영아에 대한 보호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거나 취업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어린자녀들을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8.4) 남편이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7.4%였고 베이비시터나 이웃집사람과 같은 유급보조자가 돌보는 경우도 1.1%로 매우 적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18.8%나 되어 자녀가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양육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조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보호의 대체 인력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모의 취업여부별 돌봐주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취업한 주부의 경우에 여전히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0%) 조부모나 형제자매의 도움이 많았다(약 20%).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의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약 80%정도를 아내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주로 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였다.

이런 결과는 2008년 돌봄노동에 대한 연구(장혜경, 김영란, 김필숙, 200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정이 돌봄서비스로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직접돌봄+시설돌봄, 직접돌봄, 직접돌봄+유료가정돌봄의 순으로 나타나 직접돌봄을 기초로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



출처: 細內信孝, 2007, p. 54

<그림 5> NPO·FUSION 나가이케의 생활지원사업 사례(패러다임)

다. 또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내 직접 돌봄 이용율이 낮아지고 시설보육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었다. 반면 유료가정돌봄 이용 빈도는 1-2세에 가장 높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거나 여성의 취업한 경우에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여성가족패널조사(박수미,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강석훈, 2008)에 의하면, 미취업여성의 미취학 자녀는 사교육 보육시설 이용율이 55.5%이고 취업여성의 미취학자녀 사교육 보육시설 이용율은 69.9%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성의 미취학자녀 사교육 보육시설 이용도를 시설이용수별로 보면 4개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75.6%로서 비취업여성가정이 1-2개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양상이 다소 변화한다. 김선미(2005)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학원'으로 돌리거나 '아줌마'에게 맡기거나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조정하거나 자녀들을 일찍 키워내 스스로 돌보게 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어린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체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자의 변경, 방치와 두려움, 전업주부가정에 대한 부러움 등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을 돌보는 문제에서는, 환자의 며느리가 돌보는 경우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아 환자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인 27.4%보다도 많았다. 그 외에 환자의 딸이 돌보는 경우도 10.6%로 나타나 반 이상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장혜경, 2003). 2008 여성가족패널조사(박수미 외, 2008)에서도, 환자의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부부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은 남편보다 나라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시부모님을 돌보는 사람 역시 환자의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남편보다 내가 돌보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즉 부부 중 노인을 모시는 역할이 모두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0 정부의 보육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09예산	'10 예산	'10년 사업내용
■ 보육지원강화	1,710,430	2,127,510	
○보육시설운영지원	339,883	349,528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339,883	349,528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영아전담 등 특수보육지정시설 종사자 및 대체교사, 농어촌특별근무수당
○ 영유아보육료 지원	1,282,168	1,632,204	
• 차등보육료(0~4세, 기본보육료, 방과 후 포함)	1,013,586	1,368,880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 전액지원 : 소득하위 50%이하
•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	135,600	127,753	○하위 70%이하
•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49,040	46,271	○만12세 이하 장애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83,942	85,641	○하위 70%이하, 보육시설 이용 둘째 이상 아동 지원
•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	9,659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지원을 받는 가구
○ 보육시설기능보강	21,147	9,438	○보육시설확충 - 국공립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장애아전담 신축, 기자재구입 ○보육시설환경개선
○ 보육인프라구축	16,348	12,181	○보육전자바우처운영 ○보육정보센터운영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등
○ 보육시설평가인증	3,401	3,401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 보육시설지원	15,093	55,093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 농어촌지역, 장애아전담시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32,390	65,664	○차상위 계층 2세미만 지원(월 10만원)

2. 국가의 돌봄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을 위한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를 위해 기존의 새싹플랜을 수정한 아이사랑플랜을 2008년에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09년 보육예산은 1조 7천억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저소득층 가정과 일부 저소득 가정의 만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와 취약전 아동의 학업준비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과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8년도 노인인구는 50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0.3%에 이른다. 2000년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후 급속하게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1년 도입 발표하여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고,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공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 법에 의해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

가 저소득층 대상이므로 중산층과 서민층 가정의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인복지서비스로서, 2008년 12월 현재 전체 노인의 4.3%가, 2009년 5월에는 5%가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09. 6. 29. 보도자료).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 2007)에 의하면 노인관련 재가돌봄서비스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있으며, 2007 현재 전국재가서비스제공기관은 1254개 기관이다. 시설서비스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에 직접 와서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2007년 현재 전국 시설서비스기관은 1337개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노인돌봄비바우처지원을 통해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제도들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약 2조의 정부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그 액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노인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노인돌봄으로 인한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노인돌봄의 주된 담당자들인 여성인력의 사장 내지는 개인적 활용으로 이어진다.

〈표 2〉 보육시설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개소	35,550	1,917	1,470	14,368	935	13,433	66	17,359	370	
	(비중)	100.0%	5.4%	4.1%	40.4%	2.6%	37.8%	0.2%	48.8%	1.0%	
정원	명	1,482,416	146,436	144,368	862,880	65,534	797,346	1,962	301,719	25,051	
	(비중)	100.0%	9.9%	9.7%	58.2%	4.4%	53.8%	0.1%	20.4%	1.7%	
아동수	계	1,175,049	129,656	112,338	675,763	52,718	623,045	1,655	236,843	18,794	
	현원	남	611,796	67,368	59,267	351,284	27,518	323,766	933	123,275	9,669
		녀	563,253	62,288	53,071	324,479	25,200	299,279	722	113,568	9,125
	(비중)	100.0%	11.0%	9.6%	57.5%	4.5%	53.0%	0.1%	20.2%	1.6%	
이용률	79.3%	88.6%	77.8%	78.3%	80.4%	78.1%	84.4%	78.5%	75.0%		
직원수	계	206,912	19,397	17,042	103,656	7,988	95,668	348	62,863	3,606	
	인원	남	7,263	411	1,295	4,635	494	4,141	9	876	37
		녀	199,649	18,986	15,747	99,021	7,494	91,527	339	61,987	3,569
(비중)	100.0%	9.4%	8.2%	50.1%	3.9%	46.2%	0.2%	30.4%	1.7%		
시설1개당 아동수	33.1	67.6	76.4	47.0	56.4	46.4	25.1	13.6	50.8		
직원1인당 아동수	5.7	6.7	6.6	6.5	6.6	6.5	4.8	3.8	5.2		

\*아동수 : 현원 (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3. 민간부문의 돌봄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

돌봄노동을 분담하기 위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아동의 돌봄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는 보육시설을 꼽을 수 있다. 보육시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시설이나 보육료, 보육의 질 등이 다양할 것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이 시설의 수와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의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35500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009년말 현재 1917개소로서, 전체 시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고 전체 이용아동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 통계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전체 이용아동의 11%를 담당(보건복지가족부, 2008)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90%의 아동들은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노동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전체의 1%에 불과하여 취업여성들의 바라는 양질의 서비스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돌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장혜경 외, 2008), 전체 가정의 약 57.4%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 57%, 4세 이상은 80.9%, 5세

이상은 93.4%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가정의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이 시설돌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타 돌봄노동의 대안과 사회적기업사례

이상에서 제시되었듯이 돌봄노동이 개별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저소득가정 이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아동돌봄의 대안으로서 공동육아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지원서비스사업으로 가족품앗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육아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활동의 많은 부분이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 시설보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족 돌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보고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가족돌봄지원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공동품앗이 육아망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놀토/단기방학지원서비스사업이나 이웃사촌브릿지사업 등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서울시는 SK그룹 및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0곳과 함께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운용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사회적기업인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조선일보, 2010. 1.14).

사회적기업에서도 돌봄노동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보육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간병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돌봄을 위한 사회적기업에서는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먼저, 또 많이 생겨났다. 2009년 인증 사회적기업 총 251개 중 가사간병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총 33개, 보육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총 20개로서 돌봄을 위한 전체 사회적기업은

<표 3> 보육 및 간병 관련 사회적기업 사례

영역	기업수(개)	사회적기업명
보육관련사업	20	YMCA서울아가야,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 옹기종기네트워크, 아이맘사업단, 원주아가야, 수원아가야, 군포아가야, 이천아가야 등
간병가사지원사업	33	나눔공동체, 삶과 돌봄, 행복지킴이사업단, 열린재가사회서비스, 나눔돌봄센터, 나눔과 돌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출처:사회적기업개요집, 서울강원,경인권 중심으로 재구성.

53개이다(사회적기업 개요집, 2009).

특히 사회적기업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는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시작된 대안적 사례가 많다. 간병서비스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반기업이 시작한 서비스가 노인돌봄의 대안적 사업으로 발전하여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즈는 교보생명과 함께 일하는 재단이 운영협회를 구성하여 다솜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는 취업취약집단이 여성가장가구들에게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돌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자동차의 안심생활 역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전문케어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로 간병관련 사회적기업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요보호노인케어,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관련 사회적기업은 영유아돌봄이나 사후관리서비스, 신생아관리, 유치원 등하교 돕기, 학습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영역상 가사서비스와 산모 및 영아관리, 유아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학습도우미나 방과후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소외계층 청소년 사업이나 청소년 문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어 돌봄의 영역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한다면 청소년의 공동체활동까지 돌봄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YMCA는 전국조직을 활용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에서 초등생의 돌봄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YWCA 역시 보육지원서비스와 방과후 아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생 여건상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사회적기업에서 돌봄노동을 다루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노인의 생활도움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돌봄문제에서 지적하였듯이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비교적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중산층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관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하므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앞에서 지적된 문제와 같이 저소득층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노인들을 주로 돌보는 사회적기업이 많았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서비스를 규정하게 되어 일반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주도나 대기업주도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운동으로서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돌봄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위 표에서 제시된 사회적기업들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고 간병이나 가사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아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초·중·고·대학생의 방과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청소년의 지도나 문화활동을 이끌어가는 사회적기업, 식생활영역에 집중된 사회적기업, 노인환자의 간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서비스수준에 따른 다양한 모델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사업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비영리적인 공동육아이므로 구속력이 약할 뿐 아니라 일시적인 활동이므로 아동의 돌봄시간을 장시간 확보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돌봄, 개별적이거나 공동적인 돌봄, 일정 지역이거나 가정방문적인 돌봄, 비용을 차등화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적으로 실시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돌봄노동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에서는 사업운영이나 사업영역, 돌봄의 대상과 활동영역, 서비스, 사업주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학문적인 노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IV.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적용

##### 1. 적합한 운영모델의 선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그 문제와 문제집단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설정될 수 있다.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적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사회적기업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점을 두는 기업모델과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돌봄문제 해결에 있어 법정저소득층과 일부저소득 계층은 국가의 복지지원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나

머지 가정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해결이란 보육시설이나 보육인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정의 인적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녀나 노인을 돌보아줄 사람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산의 연기나 기피 혹은 노인돌봄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질 좋은 서비스를 적당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의 취업중단이나 출산을 저하, 돌봄노동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육아나 노인보호, 방과 후 교육, 여가활동, 도시락 지원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돌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용역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운영모델 중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고용지원이나 시장중계형과 같은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보다는 서비스요금형, 기업가지원형, 비영리-기업 연계형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요금형은 목표집단에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돌봄노동의 수혜자와 기업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이다. 또한 기업이 지원형은 사회적기업이 타 사업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식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돌봄노동관련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돌봄노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기술, 콘텐츠제공, 사업자문, 인적자원 조달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인큐베이팅과 경영지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영리기업과 기업의 연계형은 사회적기업과 일반 영리기업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모델로서 공동투자나 기존 사회적기업과협력하는 형태이다. 특히 아이돌봄이나 방과후 자녀 돌봄서비스 등은 현재 사설학원이나 유치원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돌봄과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영리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돌봄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사회적 목적성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정부의 인건비 등 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업단들이 대부분이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운영모델을 가진 기업들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원하는 계층은 현재의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중류계층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료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느끼는 계층이다. 또한 보육기관의 보육료 대비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질적으로 우수하며 경제적으로 적당한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는 계층이다.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의 성격상 가정과 가까운 지역

에서 보육시설이나 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델중에서는 혼합형이나 지역사회공헌형에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형이나 지역사회공헌형 모두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유형이며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적합하다. 사회적기업은 반영리적인 성격을 띠므로 비용측면에서 영리기업보다 유리하므로 수혜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공복지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지역사회의 가정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동육아나 가족품앗이로서의 육아품앗이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돌봄노동사업은 실현가능하며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나 작은 정부의 지향 등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축소나 관련사업의 민간이전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나 본권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는 민간기업과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이 협력하는 형태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노동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보육서비스의 질 측면은 비용대비 품질의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돌봄노동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고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적기관 기업, NGO단체에 의한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의 돌봄노동의 수요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지역사회공헌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여성고용의 대안으로서의 모색**

현재 우리나라는 고학력의 여성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나 육아부담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4.7%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1.3%보다 많이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7년 OECD국가 평균인 82.6%에 크게 못미치는 62.8%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활용을 통한 신진인류국가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여성인력의 개발과 양성, 활용

및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여성가족부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기관 지정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현재 전국 50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0개소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 산업단지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하고자 하였다. 2009년 현재 5개소를 운영중이며 전국 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문화강좌 중심 여성회관의 기능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기능 강화하는 정책들을 실시중이다(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직업에 대한 여성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도 이를 지원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점차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자녀출산 및 양육과 같은 돌봄노동의 필요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돌봄의 필요성까지 부가된다면 돌봄노동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여성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돌봄노동의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즉 사회적기업이 취업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고용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고용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돌봄노동의 수요가 큰 중류계층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가정과는 달리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차별화된 고용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의 돌봄노동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과 사회적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 V. 결론: 가족자원경영학적 과제 및 적용가능성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돌봄노동 문제 해결에 접목시켜보고자 하는 시도적인 연구이므로 돌봄노동의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자 하였다. 지금까지 돌봄노동은 개인가정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어 왔고, 혹은 시장경제에 맡겨 사회화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분야였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적용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정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저출산현상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사회의 대를 이어주고 구성원의 노동력 회복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런 노력의 현장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돌봄노동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돌봄의 품앗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돌봄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며 결론에 같음하고자 한다.

### 1.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과제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가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하는데 주력하여왔으며 가족의 주요구성원인 여성 혹은 주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최근에는 가족자원의 확대방안으로 가정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가정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뿐 대안의 현장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직접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교육하는 것은 건강가정사나 가정교육전문가를 배출할 것이고 가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정책전문가를 배출할 것이지만 실제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자원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장노동에 종사하거나 가정의 돌봄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지는 못한다. 이것은 가족자원경영학이라는 통합적 학문분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업교육의 한계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기업의 운영이나 공공가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기업체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크게 발전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공공성 내지는 복지지향성으로 인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의 운영과는 방향이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이윤추구가 결합된 형태로서 공공성과 복지지향성을 갖는 동시에 기업의 운영이라는 경영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업의 형태를 통해 가정의 문제인 돌봄노동을 해결하는 것은 가족

자원경영학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돌봄노동의 책임이 아직은 대체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취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중 가정생산이나 가사노동관리, 공공가정경영, 가정생활문화 관련 과목 등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가정생산과목은 가사노동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회화의 다양한 방식으로서 사회적기업을 고안해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는 보육 및 노인간병에 관련된 사회적기업만이 개발되어 있으나 돌봄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초등 저학년생이나 기타 청소년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고안해내는 작업을 시도해본다.

공공가정경영은 비영리조직의 운영을 배우는 과목이므로 전반적인 경영과정과 서비스제공은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경영과정을 비영리 조직인 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반영리적인 사회적기업운영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문화과목에서는 생활문화의 범위를 가정뿐 아니라 청소년 및 지역사회문화로 확대하는 시각이 우선 요구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 콘텐츠개발이나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개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문화나 지역사회문화를 개발하여 확산하며 시민문화나 지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돌봄노동의 공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품앗이활동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센터의 주관하에 공동보육가정을 모으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국가주도의 사업이며 국가의 복지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조직을 모으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품앗이사업은 비영리적인 자발적 모임이므로 조직의 참여의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품앗이를 통한 가족돌봄 지원서비스사업을 모태로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시도해볼 수 있다. 즉 주민중심의 활동을 시작한 후 계속 봉사와 자발적인 활동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일부는 지역의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반영리적, 혹은 영리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돌봄노동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기술이나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을 통해 사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직된 돌봄품앗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주는 별도의 교육지원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이나 자영업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다. 센터의 사업에서는 교육 및 교육생들의 자조모임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가족품앗이 활동과 교육, 그들의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아카데미와 같이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한다. 현재 센터의 교육 및 문화사업은 개별가정 위주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거나 가족자원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도 기획해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경우에, 대상이나 활동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대안이 있겠지만 우선 맞벌이가정의 초등저학년생 자녀들의 돌봄을 제안해볼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들에서 돌보아지지만 중류계층 가정의 자녀들은 소득계층상 혹은 돌봄기관의 이미지상 가정에 혼자 머무르거나 학원을 돌아다니게 된다. 이들은 연령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기초적인 생활 및 학습관리와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집단이다. 최근 발생하는 초등생들의 안전사고를 감안한다면 돌봄노동의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며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목적이 결합될 수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는 주부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활동이 위주이며, 아이돌보미사업은 초등생자녀들에게는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맞벌이가정의 초등저학년생을 돌보아주는 사업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사업을 바탕으로 주부들이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함께 돌보아주는 활동을 소그룹별로 시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돌봄형식을 취하고, 가정의 요구나 사업성이 확보된 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맞벌이가정 자녀돌봄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가정마다 학습지도에 대한 요구나 시간, 비용, 송영서비스 여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맞벌이가정의 일시보호문제가 더욱 급박해진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통해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의 비영리적인 사업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센터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 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노동부(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령**. 서울: 노동부.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서울: 노동부.

박수미,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강석훈(2008). **2008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6. 29).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mohw.go.kr/fron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2010년 4월 1일 인출.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사)사회적기업연구원(2009). 사회적기업개요집. ebook. [http://www.socialenterprise.go.kr/community/com mu\\_doc\\_view.jsp?seq=641&boardcode=DOC](http://www.socialenterprise.go.kr/community/com mu_doc_view.jsp?seq=641&boardcode=DOC). 2010년 4월 1일 인출.

장혜경(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서울: 여성부.

장혜경, 김영란, 김필숙(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정무성(2009). 기업의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구상과 전략.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심포지엄 자료집**. 2-47.

조선일보(2010. 1.14). 시, SK, NGO와 ‘방과 후 학교’ 운영키로.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html?type>. 2010. 1. 20. 인출.

홍석빈(2009).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2009.5.6.

Alter, S. K.(2004). **Social Enterprise Model and their Mission and Money Relationship**. Nicholls, Alex ed.(2006). **Social Entrepreneurship**. NY: Oxford University Press.

細內信孝(2007) 편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박혜연, 이상현(공역). 서울: 아르케. (2011년 원저발간)

細內信孝(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정일(역). 서울: 이매진. (2006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10년 5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9월 1일